



오세훈 “LG트윈스 우승 축하 거리 환영회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연고 구단인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승리를 거둔 것과 관련해 서울광장에서 우승 축하 거리 환영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동구장 건설시 LG와 두산 베어스가 사용할 대체 구장과 관련해 오 시장은 “건설 주체인 한화콘소시업, 구장 사용자인 LG, 두산, 한국프로야구 운영기구인 KBO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창업진흥원, 대전현충원서 참배·묘역정화 봉사활동

창업진흥원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노사가 함께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와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4일 창진원에 따르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3년째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업진흥원



금융투자협회, ‘사랑의 김치 Fair’ 김장행사 진행

금융투자협회는 14일 금융투자업계(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선사) 및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제13회 사랑의 김치 Fair’ 김장행사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했다. 총 5만Kg의 김치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금융투자회사가 후원하는 복지시설 150여 곳에 전달됐다. /금융투자협회



경동나비엔, 포스코와 친환경 보일러 기부

경동나비엔이 포스코와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14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친환경 보일러 나눔 사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3년간 280여 대의 보일러를 기증하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가 지원 대상을 찾아 콘덴싱보일러 1대를 기부하면 경동나비엔도 1대를 매칭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경동나비엔



우덕재단, 공모전 수상자에 총 2500만원 장학금 전달

우덕재단이 미래 건축가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한일그룹은 우덕재단이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에서 ‘제2회 우덕 건축가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700만원 등 수상자들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일그룹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지금은 잠잠해진 이야기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깻잎 논쟁에 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원조는 ‘한 연예인 부부와 그 부부가 다니는 친구인 여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여러 겹의 깻잎에서 한 장을 떼지 못하고 강강대는 걸 도와주려고 남편이 깻잎을 잡아주었다. 이게 아내가 화낼 일이나 아니냐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닦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엉뚱하게도 상황이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한 일본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히라가나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일본인들과의

일본에는 깻잎 논쟁이 없다

교류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의 일본인과 생선구이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할 기회가 생겼다. 잘 구워진 임연수와 고등어가 식탁에 올랐고 균침을 흘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생선구이를 좋아해서 생선 가시를 바르는 것이 능숙했지만 그 중년의 신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한참을 생선 가시와 씨름하고 있기에 반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고 생선을 잡아주었더니 정색을 하면서 젓가락을 치우라고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정색하고 말을 하니 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많은 경우의 수가 지나갔다. 그중에서도 내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자기 음식을 집어서 그런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일본에서는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식사 예절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본에는 그들만의 특이한 식사 예절이 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불편하다고 느낀 것처럼 거의 모든 음식을 손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먹는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음식점에서 그 젓가락을 가로로 차려놓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젓가락을 세로로 두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로로 놓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접시에 두 개의 젓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 또한 이와 관련이 있어 자기의 영토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식사 예절은 아주 오래전 사무라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보니 일본 문화 중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바로 일본의 전통 씨름인 스모의 경기 규칙이다. 스모 규칙은 매우 단순하여 경기장 밖으로 발이 나가거나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는 쪽이 패배하는 것이다. 조금 다르게 보면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침략한 외부의 침입자를 쓰러트리거나 몰아내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보인다.

일본 문화가 우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식사 예절에서만 아니라 전통문화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깻잎 논쟁으로 돌아와, 내 선택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본에서는 깻잎 논쟁과 같은 이유로 연인이나 부부가 다툰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깻잎을 때주기 위해 젓가락을 들이미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전쟁 선포나 다툼 없으므로 오히려 둘의 싸움을 말려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일본인들은 깻잎을 먹지 않으니 애초에 깻잎 논쟁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삼성 임직원, 2주간 ‘나눔위크’ 펼쳐

관계사 23곳, 임직원 10.7만명 참여

삼성 임직원들이 ‘나눔위크’로 사회와 나누는 성과를 공유했다.

삼성은 14일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말 수원사업장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됐다. 지난 1일부터 2주간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위크’를 결산하고 나눔을 확산시키는 의미로 기획했다. ▲나눔위크 기간 동안 봉사과 기부, 헌혈에 참여한 삼성 임직원들의 노력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나눔키오스크 기부금 전달식 ▲삼성 임원들의 기부금으로 제작한 헌혈버스 전달식 ▲우수 헌혈 참여자에 대한 유공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은 물론,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및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등 봉사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이 참석해 함께 기념했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동의 가족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나눔키오스크기부받은 아동의 보호자들은 행사에서 큰 희망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삼성은 헌혈버스 4대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삼성 임원들은 지난해부터 특별격려금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100여억원을 모금해 매년 4대씩 헌혈버스를 기증하고 있다. 총 40대 기증을 목표로 한다.

대한적십자사도 삼성전자 DS부문 조상연 프로에 누적 헌혈 100회 이상자에 주는 명예장을 수여하는 등 헌혈 유공패 4개를 전달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위크 기간



14일 삼성전자 조상연 프로가 누적 100회 헌혈을 달성한 공로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화성 부품연구동(DSR)에서 열린 ‘2023 하반기 나눔의 날’ 행사에 참석해 헌혈 유공패 ‘명예장’을 받은 뒤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

전국 사업장 지역 사회에서 대면 봉사는 물론 나눔키오스크를 이용한 일상속 기부, 또 헌혈 캠페인에도 적극 참가했다. 참가자만 관계사 23곳에서 임직원 10만7000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창립기념일 대면봉사도 올해 재개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수백개 봉사팀이 봉사와 인근 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각자 소속된 팀이나 파트단위로도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사업별 장기도 살렸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플로깅과 아동 SW 코딩 교육 등, 구미사업장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건강검진기 도우미 활동을, 광주사업장은 광주고려인마을 모자이크 벽화 활동을 펼쳤다. 삼성중공업은 거제도에서 잠수동호회 주도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남은 섬유 원단으로 반려견 등 장난감을 만들었다.

대표이사들도 함께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11월 6일 경기도 성남 ‘안나의집’에서 노숙인에 배식하고 식당을 청소했다. 경계현 사장은 11월 9일 경기도 용인 ‘희망별墅’에서 장애인들과 쿠키를 구웠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그룹, 아트카로 부산엑스포 홍보

APEC 정상회의 기간 투입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특별 제작한 아트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누비며 막판 힘을 신는다.

현대차그룹은 11~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아이오닉5, EV6, G80 전동화 모델 등으로 제작한 아트카 14대를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 정상과 외교·통상 장관, 경제계 인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부산의 비전과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그룹이 제작한 아트카에는 광안대교와 갈매기 등 부산의 주요 상징물을 표현한 그라피티 작품과 ‘BUSAN is Ready’ (부산은 준비됐습니다) 슬로건이 랩핑됐다.

현대차그룹은 APEC 정상회의가



현대차그룹 아트카 차량인 아이오닉 6(왼쪽부터),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5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는 모습. /양성운 기자 ysw@

열리는 행사장 인근과 현지 주요 명소에서 아트카를 운행하며 각국 주요 인사들은 물론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임을 알린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랜드마크인 대형 쇼핑몰 ‘피어 39’ 메인 광장에서 아트카를 전시한다.

현대차그룹의 아트카는 부산 엑스포 심포지엄이 개최된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투입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 ◆ 한국수자원공사 △ 상임감사위원 이삼규
- ◆ 하이투자증권 <신규선임> ◇ 전무 △ 리스크관리본부장 신현진 ◇ 상무보 △ 경영전략본부장 류시웅
- ◆ KBS △ 인적자원실 인사기획부장 박종일 △ 인적자원실 인사운영부장 서정주 △ 인적자원실 인재개발원장 이충형 △ 성평등센터 성평등부장 강운규 △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장 이재원 △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장 최진일 △ 전략기획실 전략기획국 정책기획부장 권성범

부고

- ▲ 김정숙(향년 92)씨 별세, 이만호·이범호·이성호·이영숙·이순호·이영선씨 모친상, 이명희·김영선씨 시모상, 최용환·남상봉·전수용(파이낸셜리뷰·시사브리핑 발행인)씨 장모상 = 14일 오전 2시, 청주 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장지 목련원. 041-279-0158
- ▲ 오병래씨 별세, 양기생(무등일보 경영관리본부장)·진기(광주 고려고 교사)·송희씨 모친상 = 14일 오전 8시,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6일 오전 9시 30분. 062-227-4000